

*** 피라네시의 「건축에 관한 대화」를 통하여 본 18세기 건축 논쟁의 성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al debate of the eighteenth-century analyzed through 「Parere su Architettura」 of Piranesi

조성용* / Cho, Sung-Yong

최진희** / Choi, Jin-Hee

Abstract

This paper present a study on the 「Parere su Architettura」 of Piranesi published in 1765. In the 18th century, there were fundamental cultural and social changes in Europe. This paper intends to discover the influences of these changes on the field of architectural theory, and it also intends to reveal its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The 「Parere su Architettura」 of Piranesi was composed as a dialogue between two architects, named Didascalo and Protopiro. In this paper, Didascalo represent the Master and Protopiro the Novice(according to the translation of Kaufmann). On the artistic theory of the Enlightenment, Didascalo proclaims as a dogma. Then he inveighs against the rigorists, using strong language quite up the attacks of the Novice. The modernistic Protopiro assails every kind of embellishment. The dialogue non only helps us to understand Piranesi, but also reflects the artistic situation in the 18th century.

The summary of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he book of Piranesi represents a controversy of the romanticism against the architectural rationalism. 2. The negation of the originality of the Roman architecture has been considered as the negation of the Baroque architecture that was the artistic base of Piranesi. 3. Piranesi had ideological intention to defend the hegemony of the Italian culture through strengthening of the Etruria-Roman-Baroque cultural tradition.

키워드 : 피라네시, 18세기 건축이론, 합리주의, 낭만주의

Keywords : Piranesi, Architectural theory in 18th century, Rationalism, Romanticism

1. 서론

18세기 유럽은 문화예술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급격하고 전반적인 지각변동이 진행되었다. 천재의 시기라고 불리던 17세기를 거치며 다져진 과학적 발전과 경제적 성장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학문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변화는 당시 지성인들로 하여금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설정에 대하여 다시금 고민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당시 문화예술계에 이론적 논쟁을 촉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물론 건축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에 있었던 이론 논쟁에 대하여 그 성격 및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은 피라네시(G. B. Piranesi, 1720-1778)의 대표적 저서인 「Parere su Architettura」(건축에 관한 대화)¹⁾이다. 대화 형식을 띤 이 짧은 저서는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 예술사가인 마리에트(P. J. Mariette, 1694-1774)와의 논쟁과정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당시의 건축 이론 논쟁을 함축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피라네시의 이론적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중반 유럽 건축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요도에 비하면 건축에 관한 대화가 아직까지 피라네시 연구자를 비롯한 18세기 건축이론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건축에 관한 대

* 정회원,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정회원, 건축학 박사

*** 이 논문은 2005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G. B. Piranesi, Parere su Architettura, Roma, 1765

화」에 개진된 피라네시의 이론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 피라네시 본인의 건축적 고민을 근거로 분석할 것이다. 또,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18세기 중반 유럽의 건축적 논쟁이 매우 복잡한 문화지형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그 속에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론가로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피라네시의 예술이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건축에 관한 대화」의 집필 배경 및 내용

2.1. 「건축에 관한 대화」와 그리스-로마건축 우월성 논쟁

피라네시는 일반적으로 18세기의 위대한 동판화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몇몇 중요한 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 혹은 예술이론가로서 그의 작품 및 저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석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건축가로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키시 회화의 거장 티에폴로(Tiepolo)나 비비에나(Bibiena)의 작품에 크게 영향을 받은 그의 자유분방하고 창조적인 예술적 경향은 건축보다는 회화나 동판을 통하여 더 잘 표현될 수 있었다. 특히 피라네시가 로마로 이주한 후 그가 작업실을 둔 곳은 현재의 스페인광장 근처인데, 이곳은 당시 여행자들이 자주 들러서 판화를 매입하는 곳이었으며 피라네시의 그림은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자연히 피라네시에게는 건축을 하는 것 보다는 동판을 그리는 일이 많아졌으며, 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피라네시의 작업실이 위치한 스페인광장 주변지역은 당시 외국 학자나 화가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는데, 아마도 피라네시는 이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염두에 두고 작업실 위치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당시 프랑스에서 최고의 학생을 선발하여 로마에 유학을 보내주는 Grand Prix에 선발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프랑스 문화원 역시 스페인 계단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라네시는 이들 프랑스 학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과의 잦은 접촉은 당시 북유럽에서 새롭게 싹트던 계몽주의적 예술경향을 빠르게 접하게 해 주었다.

피라네시가 예술이론, 특히 건축이론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스페인광장 지역에 거주하던 프랑스 및 영국 학자들과 벌인 논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라네시는 계몽주의적 예술이론이 고대 로마 예술의 권위와 당시 로마가 누리던 예술적 헤게모니를 위협하게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라네시의 「건축에 관한 대화」는 피라네시라는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유럽 예술계의 주축을 이루던 중요한 학자들과의 논쟁과정에서 탄생한 중요한

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저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 피라네시를 중심으로 한 중요 학자들의 논쟁 주제 및 입장이 어떠하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신고전주의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와의 관계 설정이 현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1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크게 증가한 고고학 발굴활동은 예술가들이 역사를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전의 건축가들이 갖고 있던 '역사적 황금기'라는 절대적인 가치 판단 기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는데, 특히 '문화적 가치는 당시의 사회생활 전반의 역동적인 발전상 전반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빈켈만의 이론은 이러한 문화적 상대이론을 예술사적인 위치로 발전시켰다.

역사에 대한 시각 변화와 과거라는 시간적 깊이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예술가들이 현재라는 시간의 유일함을 인식하도록 해 주었다. 또한 예술가들은 현재라는 시간과 문화적 현상에 상응하는 표현 형태를 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화사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의 창조력을 중요시하며, 역사적 가치를 더 이상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편, 18세기 신고전주의시기에 성행하던 고고학 유적에 대한 출판물들은 1752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캐이러스 백작의 Recueil²⁾을 계기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 저서는 고대 로마 예술에 비하여 고대 그리스 예술의 '고귀한 단순미'를 부각시켰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시기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나 에트루리아 시대의 장식요소들에 관한 많은 그림들을 담아내고 있었다.

캐이러스백작의 저서는 피라네시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고전예술에 대한 피라네시의 태도가 이 시기 이후 현격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753년에 출판된 피라네시의 「아우구스투스의 트로피(I Trofei di Ottavio Augusto)」는 고대 로마시대 장식예술을 구체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캐이러스 백작의 저서에 대한 반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당시 고대 로마예술에 대한 상대적인 고대 그리스 예술 예찬은 캐이러스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753년 영국 고고학자 스투어트는 고대 로마예술은 고대 그리스 예술가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며, 1755년 피라네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스코틀랜드 출신 화가 램지(Allan Ramsay, 1713-1783)의 「취향에 관한 대화」는 고대 그리스-로마 논쟁을 한층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라네시에게 가장 영향을 준 저서는 1753년 파리에서 출간된 로지에의 「건축 에세이(L'Essai sur l'Architecture)」였다. 고대 그리스 건축의 시원성(始原性)을 주장함과 더불어 고대 로마예술을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2)A. C. Caylus, Recueil antiquités égyptiennes, étrusques, grecques, romaines et galoisss: Eloge historique, Paris 1752

묘사한 이 저서는 피라네시와 그 동료들 사이에 격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로지에의 이론은 ‘건축은 자연의 묘사(模寫)에서 유래한다’는 명제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비투르비우스 건축이론과 유사하며 실제 그의 원두막은 비투르비우스의 저서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로지에 이론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기능성’을 건축의 대전제(大前提)로 제시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같은 로지에의 건축이론에서 가장 크게 위협을 받은 것은 자유로운 창작의지가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던 바로크시대의 건축이었다. 특히 바로크 건축은 피라네시의 창작 및 구성이론의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였다. 로지에의 건축이 본질에서 벗어나 부차적인 요소를 남용함으로써 건축에 해를 끼친 것은 로마 바로크건축의 거장인 보로미니와 그 추종자들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로서 바로크 예술과 피라네시의 동판에서 주로 사용된 까프리치오³⁾는 건축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로지에의 합리주의 건축 이론과 함께, 당시 로마의 한 박물관 사서로 일하던 독일 예술사학자 빈켈만의 고대 그리스예술예찬론 역시 피라네시를 크게 자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동전을 분류하는 작업을 경험한 빈켈만은 고증학에 해박하였으며, 당시 고고학적 업적으로 새롭게 밝혀지기 시작한 그리스 예술을 고증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저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빈켈만과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중요시한 피라네시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빈켈만과 피라네시의 예술 이론 비교표

	빈켈만	피라네시
학문적 기반	고증학, 예술사학	건축, 회화(동판)
미적 지향점	우아한 단순미	다양성, 독창성
선호하는 예술	고대 그리스 조각	바로크 회화 및 건축
지지 이론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가장 높게 평가한 화가	앵스(라파엘로 학파의 독일 신고전주의 화가)	티에폴로(바로크 시기의 화가)
규범에 관한 입장	창작은 규범을 다러야 함	실천은 규범을 생성한다.

일면 계몽주의자들의 합리주의 건축이론과 피라네시를 주축으로 한 낭만주의 건축이론 사이의 대립으로 보이는 이 논쟁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 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계몽주의시기 이전까지 유럽의 건축문화는 고대 로마건축의 계

승을 표방한 바로크건축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도 로마 건축가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기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예술적 주도권은 중세 고딕건축의 전통을 깊게 간직하고 있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고고학적 발굴과 합리적 계몽주의 건축이론의 출현은 이들에게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건축의 시원성을 주장하며 고대 로마건축이 고대 그리스건축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논점은, 바로크건축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건축을 신화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며 모방의 대상으로 삼았던 르네상스 건축이론의 근간을 흔드는 논점이기도 하였다. 만약 고대 로마건축의 시원성과 순수성이 훼손된다면 르네상스 이후 문화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이탈리아 건축의 역사적 정당성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이었다.

사실 케이러스 백작을 비롯한 프랑스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건축의 순수성을 고대 로마건축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느 한 역사적 양식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이들은 현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절대적이 아닌 ‘사용 가능한 가치’로 파악하였던 것이다.⁴⁾

이러한 프랑스 합리주의자들의 논점은 르네상스시대부터 유지되던 이탈리아 중심의 예술적 헤게모니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더하여 고대 그리스건축의 시원성을 모태로 한 로지에 이론과 계몽주의 건축이론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북유럽의 전통인 고딕건축이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도 마련됨으로서 이후 네오고딕 운동이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고대 그리스-로마건축의 우월성 논쟁이 궁극적으로 예술적 헤게모니 쟁탈전의 양상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후 유럽의 건축문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더욱 명료해진다. 프랑스에서는 고딕건축의 구조적 합리성이 재평가되면서 비올레 르 뉁(E. Viollet le Duc, 1814-1879)과 같은 합리주의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독일에서는 독일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게르만 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며 쉰켈(K. F. Schinkel, 1781-1814)과 같은 신고전주의 건축가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⁵⁾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진행된 ‘민족적 양식’의 발견에 관한 지대한 관심은 이러한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

3)capriccio. 규범을 벗어나 여러 요소를 자유롭게 변형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얻어내는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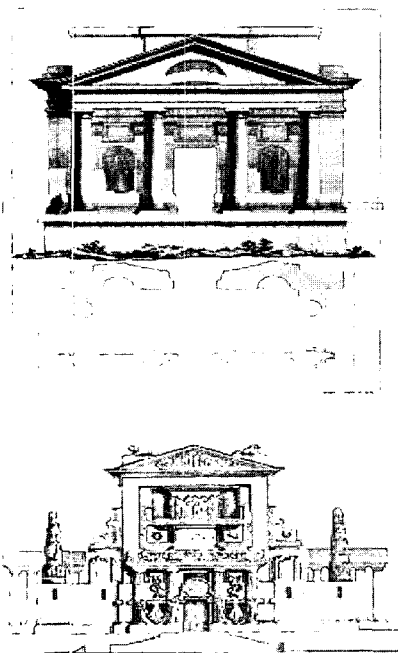
4)이에 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빈켈만의 역사적 상대주의 이론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5)K.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The Poetics of Construction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9

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에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고대 그리스-로마건축의 우월성논쟁은 당시 유럽 예술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라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전략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 「건축에 관한 대화」의 구성

18세기에 진행된 고대 그리스 예술과 고대 로마 예술의 우월성 논쟁⁶⁾은 1764년에 프랑스 예술비평가 마리에트가 피라네시에게 보낸 서신⁷⁾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한다. 마리에트는 고대 그리스 예술에 관한 케이러스(A. C. Caylus, 1692-1765)의 이론⁸⁾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에트루리아가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라네시가 주장한 에트루리아 예술의 독창성을 전면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고대 로마예술은 전적으로 고대 그리스 예술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고대 그리스에서 데려온 노예들에 의하여 전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대 로마에 전파된 고대 그리스 예술은 쇠퇴기를 맞이하였지만, 변형되지 않은 순수한 고대 그리스 본토 예술은 여전히 ‘순수한 단순미’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1> 건축에 관한 대화에 포함된 도판: 상부 그림은 엄격주의자인 프로토피로의 건축적 입장을 묘사하기 위한 도판으로 모든 장식이 배제된 채 가장 단순하고 합리적인 건축의 예를 보여준다, 반면 하부 그림은 낭만주의적 입장에 근거하여 장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더의 구성원리는 고전주의적 규범을 크게 벗어나고 있어 건축가의 상상력과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한 예로 수록되었다.

6)고대 그리스건축과 로마건축의 우월성논쟁을 비롯한 18세기 건축이론의 쟁점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건축에 관한 대화의 집필배경을 분석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7)비평가 마리에트(Mariette)는 그의 논문을 피라네시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1764년 Gazette litteraire de France에 발표하였다.

8)A. C. Caylus, op. cit. 에 나타난 이론을 말함.

피라네시의 건축에 관한 대화는 마리에트의 편지에 대한 반론으로 작성되었다. 1765년에 발표한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부분은 「마리에트의 편지에 관한 고찰 (Osservazioni ... sopra la lettera de M. Mariette)」인데, 여기에서 그는 마리에트 글에 대한 반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건축에 관한 대화」는 마리에트에 대한 반론 바로 뒤에 나오는데, 내용상 앞글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술사의 발전과정을 고대로부터 집필하려고 했던 그의 미완성 논문의 서론으로 구성되었다.⁹⁾

「건축에 관한 대화」는 프로토피로(Protopiro)와 디다스칼로(Didascalo)라고 하는 두 건축가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있다. 프로토피로는 새로운 건축적 경향의 추종자로서 로지에 이론과 반켈만(J. J. Winkelmann, 1717-1768)의 ‘단순미’를 적극 추종하는 엄격주의자를 대변한다. 반면 디다스칼로는 예술가의 창조적 풍요함을 대변하며, 극단적 엄격주의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비평하는 낭만주의자를 대표한다. 루소와 칸트로 대표되는 계몽주의 철학의 태동과 더불어, 당시 건축계는 새로운 합리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대대적 혁신을 시도하는데 이 작업은 역사의 재평가 작업을 동반하였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글 속에서 혁신파로 대표되는 엄격주의자는 철저하게 ‘전통의 순수함을 재발견’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낭만주의자 역시 전통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는 오히려 과거를 기반 삼아 예술가들은 자유롭게 새로운 건축과 형태를 무한정 창조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혁신주의자의 논리가 역사적 재평가 작업을 통한 전통의 고수에 있는 반면 낭만주의자의 논리는 오히려 전통의 혁신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낭만주의자인 디다스칼로는 장식의 배제와 엄격한 기능성만의 표현만을 주장하는 합리주의자들의 주장 속에서 건축이 의사소통이 단절될 위험성을 경고한다.

“주두도 필요 없고, 주초도 필요 없고 ...그러면 결국 허허벌판 말고 무엇이 필요한가?”¹⁰⁾ 라는 대목에서 보이듯이 피라네시는 로지에를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 건축운동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 건축에 관한 대화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라네시 글에서 프로토피로는 엄격주의자(the rigorist)¹¹⁾로 지칭된다. 그는 계몽주의 사상의

9)논문의 원 제목은 다음과 같다. G. B. Piranesi, Osservazioni sopra le lettere de M. Mariette, assieme al Parere su l'Architettura e Della Introduzione e del Progresso delle belle arti in Europa de' Tempi antichi, Roma, 1765.

10)G. B. Piranesi, Parere su Architettura(Roma, 1764) in Giovanni Battista Piranesi; Scritti di Storia e Teoria dell'arte(P. Panza 감수), Sugarlo, 1993, p.254

대변자이며 비트루비우스 건축의 신봉자로서 건축의 근본적 원리는 엄격함, 합리성 그리고 모방이론¹²⁾에 기초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논리는 당시 배니스의 신부이자 건축이론에 관한 저술활동으로 잘 알려졌던 로돌리(C. Lodoli, 1690-1761)¹³⁾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반면 디다스칼로는 내용 구성상 피라네시 본인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서에서 논쟁의 핵심은 점차 건축에 있어서 장식의 문제로 집중된다. 그런데 피라네시는 이 문제를 탐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매우 흥미 있는 이론적 주제들을 도출해낸다.

첫째, 건축의 어느 부분까지를 장식이라 정의할 것인가? 둘째, 건축과 장식은 실제 분리가 가능한 것인가? 셋째, 장식은 순수한 외적 첨가요소인가 혹은 건축의 필수 구성요소인가?

구체적인 논쟁의 발단은 피라네시의 저서인 「Della Magnificenza」¹⁴⁾에 대한 프로토포피로의 비평으로부터 출발한다. 「Della Magnificenza」에 묘사된 상세한 장식들은 건축의 진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전달해주지 않는 불필요한 부가물일 뿐이라는 프로토포피로의 비판에 대하여 디다스칼로는 “규범에 치중한 나머지 다양한 변용과 구성의 자유로운 해석이 결합된 건축은 표현력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건축을 단순한 노동행위로 전락시킨다”는 점을 매우 논리적으로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피라네시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디다스칼로가 합리주의 건축을 비판하며 지적한 다음의 정의일 것이다. “엄격함, 합리성, 원초적 오두막집은 건축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는 별 연관성이 없다.”

이 문장을 통하여 디다스칼로는 사실상 당시 건축이론의 핵심적 화두였던 로지에의 이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로지에의 원초적 오두막집은 건축의 근원성에 대한 탐구였으며, 건축 구성요소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이었다. 또 로지에의 이론으로 고대 그리스 신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이 다시 신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팔라디오가 신고전주의 건축의 대표자로 부각되며 모방의 대상으로 거론된 것도 로지에의 영향이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피라네시는 그의 논문에서 디다스칼로의 입을 빌려 18세기의 합리주의적 건축이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그의 건축이론은 계속되는 논문의 내용 중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다.

11) 프로토포피로의 이론적 경향을 ‘엄격주의’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은 비트루비이다. 본 논문에서도 비트루비어의 정의에 의하여 합리주의와 엄격주의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에 관하여는 R. Wittkower, Piranesi's Parere su Architettura, Journal of the Warburg, vol.II, n.2, 1938, p.15 참조.
 12) imitation. 모방과 모사에 관한 논쟁은 후기 르네상스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서 신플라톤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E. Panofsky, Idea. Ein Beitrag zur Begriffsgeschichte der älteren Kunsttheori, G.B. Teubner, Leipzig Berlin 1924 참조
 13) A. Memmo, Elementi di architettura lodoliana, Roma, 1786
 14) G. B. Piranesi, Della Magnificenza ed Architettura de' Romani, roma 1761

“만약에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합리적 원리와 건축적 진리만을 추구한다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장식에만 그치지 않는다. 칸막이벽, 오더의 비구조적 요소, 지붕의 박공은 물론이고 사실 건축물에서 거의 대부분의 요소가 합리주의적 건축이론에 의하면 불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상징적 의미의 원두막집이 아니라 진짜 원두막집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디다스칼로는 칸막이벽이나 박공은 물론이고 우리가 보기에 필요할 것 같지 않은 모든 건축요소들도 사실은 건축적 진화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이 요소들은 건축물의 창조적 표현가치를 저장하고 전달해주는 건축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것이다. 이로서 장식은 건축의 한 부분으로서 당연히 그 존재 가치를 부여 받았다.

하지만 피라네시는 모든 장식을 다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장식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치장을 의미하는 장식과는 일정부분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관점은 특히 양식(style)을 드러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장식 혹은 건축의 내적 역동성과는 관계가 없이 무질서하게 사용된 장식을 부정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오랜 경험을 가진 건축가는 장식요소들을 적절하게 구성할 줄 알아서 자연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위계질서, 안정적인 아름다움, 과도함이 절제된 적절한 가감의 법칙을 사용하여 요소들이 서로 무질서하게 혼재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다.”¹⁶⁾

이로서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설정보다는 건축 구성능력이 중요하며, 특히 건축가의 창조 능력과 숙련된 경험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피라네시의 주장은 다음의 문장에 함축되어 있다. “규범에 얽매인 건축은 창의적인 건축가들의 지적 활동을 단순노동자로 전락시키며, 건축을 건설로 대체한다.”¹⁷⁾

고전주의 건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라네시는 무조건적인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가 반대했던 것은 신고전주의 건축이 고전건축의 언어를 양식적 표현의 수단으로 변화하여 무표정한 추상적 요소로 변질시키는데 대한 반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고전주의 건축이 엄격한 규범의 준수를 강조한 나머지 건축형태의 획일화 또는 단순화를 초래함으로써 건축적 다양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다음의 글에서 그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다. “창조적 풍부함을 비판하는 것은 고전건축과 최근 건축계의 거장들이 일구어낸 위대한 건축적 성과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다.”¹⁸⁾

15) G. B. Piranesi, op. cit., pp.254-255
 16) G. B. Piranesi, op. cit., pp.256-257
 17) 예술적 차원의건과 단순한 노동의 산물로서 예술과는 무관한건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Adolf Loos에 의하여 다시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M. Tafuri, G. B. Piranesi: architettura come <<utopia negativa>>, in <<Angelus Novus>>, n.20, Venezia, 1971, p.117

이상과 같이 피라네시의 저서 속에는 다양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제들은 두 명의 상반된 의견을 갖춘 인물에 의하여 논쟁적 방법으로 탐구되고 있는데, <표 2>에서는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 2> 이론적 쟁점 분석표

	디다스칼로	프로토포로
지지 이론	낭만주의 건축을 지지	계몽주의 이론을 지지
지향점	창조적 능력을 개발	원칙, 규범, 고전적 가치 탐구
예술적 '황금기'	고대 로마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
장식에 대한 입장	건축가의 창조력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장	건축의 본질의 방해
건축가의 조건	현장의 경험을 중시. 이론가의 역할에 대하여 불신	건축의 이론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비트루비우스나 로지예를 지지
미학적 입장	다양한 요소들에 조화를 부여하는 구성론에 중점	건축의 이론적 원리체계를 탐구. 순수한 원형(프로토타입)을 추구
전통	전통의 혁신	전통의 고수

3. 알레고리(allegory)와 건축의 소통가능성에 대한 탐구

본 논문의 2.2절에서는 간략하게나마 베니스 신부인 로돌리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의 건축이론은 철저하게 엄격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이는 당시 프랑스 합리주의 건축가들의 이론에 부합하는 것이었다.¹⁹⁾ 피라네시는 사실 베니스 출신의 건축가였으며 그의 예술적 성장과정에서 베니스적 전통은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피라네시는 로돌리의 이론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그의 초창기 작품들에 분명하게 들어난다.²⁰⁾

피라네시의 이론적 경향이 1764-6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마리에트와의 논쟁이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특히 흥미 있는 점은 본 논문의 주제인 「건축에 관한 대화」 속에는 마리에트와의 논쟁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건축론적 주제를 유추한다는 점이다.

첫째, 건축은 내재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 가능한 언어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건축의 의미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건축가의 개인적 능력에 의하여 발현되는 것이다.

셋째, 창조적 건축가의 능력은 경험에 의하여 검비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위의 첫 번째 주제인 건축의 소통 가능성에 대하여 논 할 것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다음 장에서 논 하려 한다.

의미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피라네시는 분명 후기 르네상스시대의 개념주의적 예술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²¹⁾ 중세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도상학(Iconology) 이론은 후기 르네상스 시대 신플라톤주의와 맞물려 심도 있게 연구되었는데, 베니스는 이러한 도상학 연구의 중심지였다. 피라네시는 그의 이론적 형성기를 베니스에서 보냈는데 이는 그가 도상학 이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 그의 판화작품에서 흔하게 보이는 장식적 요소들은 모두 이와 같은 도상학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요소들임은 쉽게 파악된다.

피라네시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 즉 알레고리(allegory)에 깊은 관심을 갖았는데, 이는 건축이 회화와는 달리 추상적 개념을 직접적으로 모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알레고리는 당시 피라네시와 이론적 대립관계에 있던 빈켈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빈켈만이 1755년에 발표한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재현(representation)이 가능하려면 알레고리를 이용하는 수밖에는 없다: 알레고리란 심벌을 이용하여 개념적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²²⁾

피라네시가 알레고리에 관심을 갖은 이유는, 건축이 추상적 원리를 고집한다면 이해 불가능한 ‘병어리 건축’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그는 르네상스로부터 맥을 잇고 있는 건축적 전통이 의미에 대한 합의된 표현형식을 담보해주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전통이 부정된다면 의사 전달체제로서 건축언어가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고대 로마건축-르네상스-바로크로 이어지는 예술사적 계보를 계몽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피라네시의 논리는 건축 및 예술의 본질적 의미에 관한 문제로까지 파고 들어간다. 특히 이러한 논리적 전개과정에서 그는 빈켈만의 알레고리 이론을 자신의 도상학 이론과 연결시켜 전개해나가는 학술적 정교함까지 보여준다. 사실 당시 빈켈만에 의하여 당대 최고의 화가로 칭송받던 멩스(A. R. Mengs, 1728-1779)가 라페엘로파 회화의 대표자였으며, 특히 후기르네상스의 알레고리즘

21) 피라네시와 매너리즘 예술이론과의 연관관계에 관하여는 다음 논문을 참조. Paolo Marconi, Ricerca sulle fonti della cultura d'immagine piranesiana: la scala gigantesca e l'ornato allegorico degli anni '60, in Piranesi et les français: 1740-1790, Roma, 1978

22) Winkelmann, Gedanken über die Nachahmung der griechischen Werk etc., Dresden, 1755. 11년 후 그는 알레고리에 관하여 훨씬 더 방법론적으로 구체화된 다음의 글을 발표한다. Winkelmann, Versuch einer Allegorie, besonder für die Kunst, Dresden, 1766

18) G. B. Piranesi, op. cit., pp.245-247

19) 로돌리의 건축이론에 관하여는 A. Memmo, Elementi di architettura lodoliana, Roma, 1786; Emil Kaufmann,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Dover Pub., New York, 19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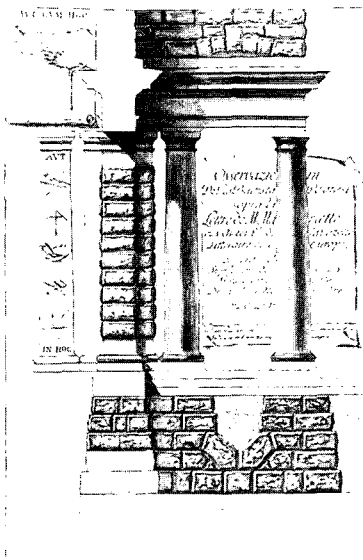
20) Paolo Marconi, Ricerca sulle fonti della cultura d'immagine piranesiana: la scala gigantesca e l'ornato allegorico degli anni '60, in Piranesi et les français: 1740-1790, Roma, 1978

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던 화가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피라네시는 빈켈만에게 쉽지 않는 이론적 반격을 가한 셈이다.

우리는 피라네시의 논문이 건축이 추상적 개념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미전달 체계상의 문제점을 예지력있게 언급한 점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건축가와 이론가의 대립

피라네시의 논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 중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글인 「마리에트의 편지에 관한 고찰 (Osservazioni ... sopra la lettere de M. Mariette)」의 표지에 그려진 삽화는 매우 은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도판은 계몽주의 건축의 논리를 그 내부에서 비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마리에트의 비평가적 자질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던지려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마리에트의 편지에 관한 고찰 표지 그림

<그림 2>에서와 같이 이 표지그림의 기둥 양식은 터스칸 오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양식은 에트루리아 건축에 기원하는 것으로 모든 오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이 오더는 도릭 오더, 코린트 오더와 같은 고대 그리스 건축양식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형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터스칸 오더의 특징은 장식요소가 극소화되고 기능미가 뛰어나 로지에가 주장한 원초적인 건축형태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간주된다.

도판에 그려진 주두양식이 터스칸 오더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계몽주의자들의 논리인 간결함, 순수함을 따르자면 가장 적합한 주두는 바로 터스칸 오더이어야 하는데, 이는 고

대 그리스시대의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문명의 모태로 여겨지던 에트루리아 시대에서 기원하는 것이었다. 로지에의 이론을 그 내부에서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려는 피라네시의 의도는 앞 절에서 빈켈만의 알레고리 이론에 대한 분석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표지의 좌측에 있는 그림은 마리에트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윤곽선으로만 그려진 오더 상부에는 글을 쓰고 있는 마리에트의 왼손이 그려져 있으며 그 위에는 라틴어로 'AUT CUM HOC'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기둥 내부에는 건축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가 표현되어 있으며 라틴어 'AUT IN HOC'가 쓰여 있다. 라틴어의 의미는 그림과 함께 해석되어야 하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글만 쓰는 사람',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도판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즉, 건축 이론에 관한 논의는 마리에트와 같이 책상에서 글이나 쓰는 비평가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실제 건축 현장에서 창작 작업을 하는 건축가들만이 논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다. 피라네시는 고전예술의 창조성은 실제 창작행위에 종사하는 실무자만이 가장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예술가의 창작의지를 모든 논란에 상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현장경험이 없는 순수비평가에 대한 불신은 마리에트 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날이 선 공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 피라네시와 논쟁의 대상이었던 빈켈만과 케어러스 백작 역시 고고학자들이었지 건축가들은 아니었다. 결국 피라네시의 논리는 당시 그와 논리적 대립 관계에 있던 모든 이론가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비트루비우스 이후 대부분의 건축 이론은 건축가들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후기 르네상스시기의 예술이론 역시 대부분 화가나 건축가들이 연구하였다. 건축이론의 발전과정에서 빈켈만이나 로지에 같이 이론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피라네시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 현상이었으며, 이론은 풍부한 현장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리에트를 비판하기 위하여 작성된 이 글은 건축분야에서 순수이론가 혹은 순수 비평가라는 새로운 영역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건축가와 비평가 사이의 변증적 대립구도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다.

5. 결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1765년에 발표된 피라네시의 저서 건축에 관한 대화의 성격 및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 건축이론 속에서 피라네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더 포괄적으로는 당시의 이론 논쟁이 어떻게 문화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몽주의 쟁탈전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쟁구도를 갖고 작성된 피라네시의 논문은 건축의 본질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언급하며 답을 구하려 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식에 관한 문제: 피라네시는 장식을 건축의 본질적 요소의 일부로 해석하였다. 장식은 건축에서 예술의 본질적 기능인 재현(representation)을 담당하며, 건축가는 이를 통하여 창조적 다양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장식의 배제가 의사전달체계의 부재로 이어질 위험을 예고하였다.

2.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에 관한 문제: 피라네시는 엄격한 기능주의 건축이 추상적 규범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철저한 원칙과 규범의 준수, 순수함을 강조한 나머지 건축의 모든 표현적인 요소의 부정, 건축가의 개인적 창작의지와 표현의 다양성이 거부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건축의 획일화를 피라네시는 낭만주의 건축이론으로서 보완하려 하였다.

3. 순수 이론가들의 역할에 관한 문제: 마리에트의 편지를 반론하기 위하여 제기된 이 문제는, 그러나 이 시대 이후 진행된 학문적 분화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건축가와 이론가, 역사가, 비평가의 역할이 점차 확고하게 분리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학문적 분화는 각각의 영역의 학문적 깊이를 깊게 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피라네시는 실천과 분리된 이론을 부정하려 하였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는 피라네시의 논문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피라네시의 건축에 관한 대화는 18세기에 급박하게 전개되던 합리주의 건축이론의 형성 과정에서, 이 이론의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낭만주의적 건축 이론가들의 반론 성격을 갖는다.

2. 로지에와 빈켈만을 주축으로 형성된 합리주의자들은 고대로마건축의 시원성을 부정하였으며, 이는 피라네시의 예술적 바탕인 바로크건축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되었다.

3. 피라네시는 에트루리아-로마-바로크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보를 변론하려 하였는데, 이는 합리주의에 의하여 공격받던 이탈리아의 문화적 주도권을 고수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의도로 해석된다.

피라네시의 논문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탄생한 철저한 시대적 산물이었다. 하지만 논점이 상반되는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예술사적 주제에 도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주제들은 이후 오랫동안 건축이론의 과제였으며, 아직도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다. 장식에 관

한 아돌프 로스의 저서는 피라네시의 주제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건축의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1960년대 이후 근대건축의 주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참고문헌

1. A. Memmo, Elementi di architettura lodoliana, Roma, 1786
2. E. Panofsky, Idea. Ein Beitrag zur Begriffsgeschichte der älteren Kunsttheori, G.B. Teubner, Berlin, 1924
3. E. Kaufmann,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Dover Pub., New York, 1955
4. G. B. Piranesi, Osservazioni sopra le lettere de M. Mariette, assieme al Parere su l'Architettura e Della Introduzione e del Progresso delle belle arti in Europa de' Tempi antichi, Roma, 1765
5. J. Wilton Ely, Piranesi, Electa, Milano, 1978
6. K.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The Poetics of Construction in Nienteenth and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9
7. P. Marconi, Ricerca sulle fonti della cultura d'immagine piranesiana: la scala gigantesca e l'ornato allegorico degli anni '60, in Piranesi et les francais:1740-1790, Roma, 1978
8. Winkelmann, Gedanken über die Nachahmung der griechischen Werk etc., Dresden, 1755
9. M. Tafuri, G. B. Piranesi: architettura come 'utopia negativa', in Angelus Novus, n.20, Venezia, 1971
10. R. Wittkower, Piranesi's Parere su Architettura, in Journal of the Warburg, vol.II, n.2, 1938

<접수 : 2006. 10. 31>